

이긴자 일대기【17】

# 은혜 간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

아브라함이 첫째 천사로 첫 번째 인을 때는 자요,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이며 네 번째는 야곱의 장자 단입니다. 이렇게 땅의 4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하늘의 3수가 되는 영모님과 해와 이긴자 그리고 아담 이긴자로 채워짐으로써,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해진 7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일곱째 천사로 일곱째 인을 때는 구세주가 됩니다. 하늘의 3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했고 이어서 54절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지난호에 이어)

육군 중위 계급장이 부착된 장교복을 착용하고 소사 신앙촌을 처음 방문한 조희성 주님은 박태선 장로님으로부터 안찰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아파도 참아요.”라고 말씀이 떨어진 후 드러누운 상태에 있는 주님의 배에 박장로님의 손을 갖다 대니 정말로 생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서 펄펄 뛰게 되니, 주위에 있던 네댓 명의 장정들이 주님의 팔다리를 꼭 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지 않은 죄인들에게서 감당할 수 없는 영의 세력이 온다

안찰을 받은 주님은 소사 신앙촌을 떠나 논산훈련소로 가는 동안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동동 떠서 가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에서 뱃속까지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듯 강하게 생수연결이 되니, 버스를 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않은 죄인들인지라 그들에게서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오염 받아 다시 더럽혀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

던고로 일곱째 천사 조희성 주님은 걸어서 소사에서 영등포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의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감적으로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을 늘 주장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소사에서 걸어서 영등포까지 온 주님은 기차를 타고 논산 훈련소로 가게 될 때에도, 죄인의 몸에서 방출되는 선악과 세력에 오염이 될까봐 차량과 차량을 연결하는 기차 칸막이의 난간에 서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객차장이 “장교님, 위험하니까 열차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고 권고를 하니, 주님은 좌석에 앉으려 가는 척하다가 여객차장이 말쑥이 가면 도로 기차 칸 사이로 가서 서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갑하여 주일마다 소사 신앙촌으로 왕래를 하게 되었는데, 열차를 타고 갈 때마다 기차 칸 사이에서 서서 가기에, 여객차장들이 “저 장교님은 저렇게 서서 가시는 것이 좋은가 봐!” 하면서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다.

“왕중왕이 되실 분인데 당연히 큰절을 올린 것이외다”

이렇게 육군 중위 시절, 논산 훈련소에서 부천에 있는 소사 신앙촌까지 영모님을 뵙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여름 어느 날, 논산역 앞에서 날씨가 더워서 모자를 벗고 나오는데 갓 쓴 웬 할아버지가 녁죽 세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희성 주님은 젊은 청년 장교인데, 갑자기 하얀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절을 하니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에 전과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또 갑자기 육군 중위 장교복 차림의 주님 앞에서 세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길바닥에서 절을 받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정도 절을 받게 되니 무슨 영문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젊은 것에게 세배절을 하시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절 이상하게 보니 창피하잖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공대말로, “아닙니다! 왕중왕이 되실 분인데 당연히 큰절을 올린 것이외다. 관상과 골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왕이 될 제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북두칠성의 점이 있고 양손에는 임금 王(왕)의 손금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스럽고 귀한 만남을 절로써 예를 갖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하고는 덧붙여서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 세상은 마구니



1957년 11월 1일에 소사 신앙촌 건설이 시작되어 1년만에 완공

세상인지라 왕중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이 노출되면 탐만 있으면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라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할아버지들과의 인연은 훗날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이 오십이 다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밀실에 들어가서 무서운 연단을 받을 때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결국 이긴자, 즉 전지전능한 완성이자 되기까지의 사명감을 불어넣어준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영모님이 늘 동행하면서 은혜가 연결돼

길을 걸어가나 기차를 타고 가나 조희성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 때부터 다섯째 천사 영모님(박태선 장로님)으로 변신한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 앞에 나타나시어 늘 함

께하면서 따라다니시는 것입니다.

영모님의 모습이 눈에 박혀 있었고, 여기저기 봐도 영모님의 얼굴이요, 저기를 봐도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영모님으로 화하여 보이기에 다른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다섯째 천사가 되는 영모님이 따라다니고 은혜가 되니까 그 당시 박기호 전도사한테 “영모님이 따라 다니시지요?”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조희성 주님은 영모님이 늘 따라다니니까 전도사 정도면 자신보다 나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박기호 전도사의 눈이 동그해지니까, 하나님이 주님에게 나타나시더니 ‘윗!’ 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박기호 전도사가 “영모님이 따라다니시다니요?”라고 말을 하기에, 주님은 “아니, 전도사쯤은 영모님이 따라다니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게 말을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글병글 웃는 것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전도관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배를 보는 교인들이 150만 명이나 되었지만, 150만 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다섯째 천사 박태선 장로님을 영모(靈母)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섯째 천사는 일곱째 천사의 영적 엄마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천사의 형상을 하고 일곱째 천사와 함께 하시면서, 일곱째 천사의 마음속에 거하는 양신 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완성자로 거듭날 때까지 영적 동정녀로서 해산의 수고를 하신 끝에, 삼위(三位)의 하나님이 일곱째 천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하나로 즉 삼위일체로 회복하여 6천 년 전에 잃었던 에덴동산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생각의 물질

The Substance of Thought

1. 사람으로부터 쏟아져 나가는 생각의 물질은 일종의 광선물질(光線物質)인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대로 그 빛깔과 모양이 변화하고 있다.

The substance that radiates from human beings in the form of thoughts is a kind of luminous matter, and its color and shape vary according to each person's thoughts.

2.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물질이 각각 다르게 생겨나간다.

As each person thinks differently, the substance that emanates from them also differs.

3. 죄인(罪人)의 몸에서는 독소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From the bodies of sinners, toxic substances are being emitted.

4. 이 독소물질은 바로 썩은 피로부터 방사되는 물질이며, 그것은 곧 악한 마음에서 나온 물질이다.

These toxic substances are released from decayed blood and are, in essence, the manifestation of a wicked heart.

5. 반면에 의인(義人)의 몸에서는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간다.

In contrast, the bodies of the righteous emit life-giving substances.

6. 이 생명의 물질은 바로 성결(聖潔)한 피로부터 나오는 광선물질인데, 이것은 만물을 썩히는 독소물질을 제거하면서 또한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This life substance, which originates from purified blood, is a radiant material that not only removes the toxic elements that decay all things, but also breathes life into them.

7. 앞으로 연구가 진척되면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물질이 생명체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As research advances, scientists will eventually discover that the life substance emitted from the human body is the very foundation of all living beings.\*

## 영생이 있기에 상고하는 성경책이란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주인공

성경(聖經)이 인간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책인 이유는 그 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 중의 뜻이 에덴동산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지 아니하고 화락 가운데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주인공을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에덴동산을 회복하겠다는 말은 옛날 옛적에 에덴동산이 무너져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동산이 무너진 자리에 사망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죄악 세상이란 마귀가 집권하는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에덴동산을 회복할 구세주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다만 성경에 구세주는 백합화라든지 감람나무 가지라는 등 식물로 비유되어 있는가 하면 양과 같은 동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정도는 약간만 영안이 열려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이라야 볼 수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된 오실 구세주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신 보내실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겠다고 했는데 그 구세주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오신다고 사도행전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기까지

그런데 성경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몸을 빌려 입은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기까지 어떤 과정의 연단을 겪고 어떻게 하여 영생체로 거듭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정제와 소제를 알아야 되며 그런 후에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추어야

성경에는 사람 몸의 영생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디도서 1:2)”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로마서 6:22)”,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요한복음 5:39)”등.

합니다. 죄를 소멸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자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요 사망을 삼키는 승리자 구세주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경에 없는 새로운 말씀을 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세주 자격을 획득하기까지 마귀에게 사전에 노출되면 안 되었던 천기에 해당하는 비밀이 있었으며 게다가 아담 이후 6천 년간 마귀와 싸워 백전백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대적 마귀를 이기는 비결을 캐내야 하는 당신의 불리한 입장이 고려된 것입니다.

다만 성경 요한계시록에 구세주 자격을 갖추게 될 자를 ‘이기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는 첫째,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며, 둘째,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며, 셋째,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겨져 있는 새이름을 받는 자에게는 알 사람이 없으며, 넷째, 이기는 그에게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며 또한 그에게 새 벽별을 주며, 다섯째,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며, 여섯째,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일곱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고 일

곱 번에 걸쳐 구세주로서 이기는 자의 특징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이기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이기기에 일곱 가지의 특징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믿음으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교인들을 가리켜 이기는 자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마귀를 기만하여 방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전략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는 만민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무엇을 이기는가에 대한 물음의 정답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

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경이롭고 처음 듣는 생소한 말씀이겠지만, 오늘날 성경은 마귀에게 지는 보통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성경 속에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지는 하나님은 죄짓지 않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고로 당연히 성경에 죄짓지 않는 방법이 논하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이 폐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하면, 앞으로 마귀를 이기는 온전한 하나님이 오시면 그제야 그분의 새로운 진리말씀으로 채워진 온전한 참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고 진리의 성령이기에, 기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죄짓지 않는 비결과 마귀를 이기는 비결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게 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있기에 상고하는 성경책’은 기존의 성경66권이 아니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구세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참성경을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